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완욱 교수, 역대 최대 규모 신약개발 기술이전 계약 체결

가톨릭중앙의료원, 난치성 질환 치료 기술 사업화로 기초의학 투자 결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동건 교수) 내과학교실 김완욱 교수 연구팀이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과 신약개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세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국내 의과대학과 글로벌 바이오기업 간 체결된 단일 기술이전 계약 가운데 역대 최고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7월 13일(월)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에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셀트리온과 기술이전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학교법인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 학교법인 보건정책실장 지상술 신부,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부단장 배원일 신부,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 (주)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권기성 연구부문 수석부사장, 이수영 신약연구본부

부사장, (주)셀트리온 제약 유영호 사장, 최승재 수석부사장 등 총 12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김완욱 교수 연구팀의 기술이전은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천 물질을 사업화 단계까지 발전시키는 가치 증명형(Value-Up) 연구를 통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셀트리온에 이전될 기술은 특정 성장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신규 단일클론항체 기반의 자가면역질환 치료 기술이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9년부터 장기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국내외 학술지와 연구 발표 등을 통해 제시해 왔다.

특히 이번 계약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료원장 민창기 교수)의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육성 전략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역량이 결합된 대

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미래 의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는 “오늘 협약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와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값진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소외 없이 양질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보편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겨자씨키움센터 사업화트랙1기 KHF 2026 진출

겨자씨키움센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KHF 2026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기다립니다.

26.08.19. WED - 21. FRI 코엑스 3층 C, D홀

일정

2026년 8월 19일(수) ~ 8월 21일(금), 3일간

8월 19일(수) ~ 20일(목)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

8월 21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입장 마감 오후 4시 30분)

겨자씨키움센터 단독 포럼

의료 현장의 씨앗,
AI와 지식 플랫폼이 만나 혁신의 숲을 이룬다;

겨자씨키움센터 사업화 성과 및
메디컬 테크 비전 포럼

2026년 8월 20일(목) 2일차
오후 1시 ~ 오후 5시, 박람회 내부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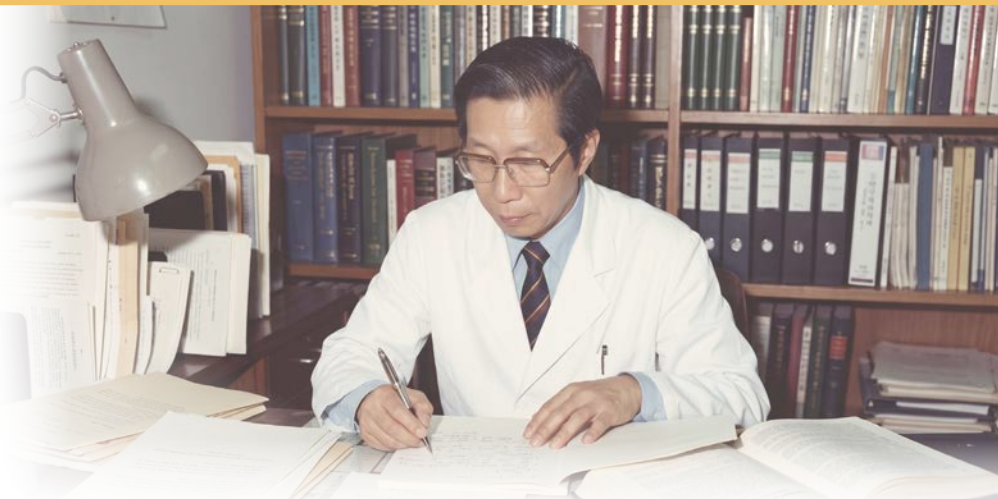
겨자씨 키움센터
GRANUM SINAPIS CENTER

KHF 진출팀 리스트

소속기관	회사(팀)명
여의도성모병원	(주)울쏘케어
은평성모병원	X.R
정보융합진흥원	(주)디지털팜
성의교정	오리지널스
서울성모병원	피식널스
	간호베이션
	TalkTalk
	스무스
의정부성모병원	Easy-ABGA
부천성모병원	럭키버키
은평성모병원	제로디
	CAUTIZERO
	Fastriage
대전성모병원	Kollok



손수 만든 장치로 세계 학계에 이름을 알린 생화학의 개척자 심봉섭



심봉섭 교수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열정적인 연구를 지속해 세계적 석학이 되었다.
(시 생성 이미지)



심봉섭 교수

1958년 4월 명동, 성모병원 곁 흰 목조건물의 비 새는 실험실. 공군 소령 군복을 벗은 한 의사가 손수 만든 전기영동장치 앞에 앉았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1950)하고 항공의학연구소 생화학과장을 지낸 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심봉섭 교수(1926~2017)였습니다. **변변한 장비 하나 없던 이 작은 방이 훗날 한국 기초의학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생화학교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26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심봉섭 교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생화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창창하던 청년의 앞길은 한국전쟁으로 가로막혔지만 생화학을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공군 항공의학연구소 연구 장교로 일하며 계속해서 실험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실험 장비를 구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시절이었으나 선생은 손수 전기영동장치를 제작하여, 「한국인의 혈청단백질에 관한 여지 전기영동법에 의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인연은 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4년 개교 후 1956년 본과 강의를 시작되면서, 심봉섭 교수는 군의 허가를 받아 생화학 강의를 맡았습니다. 이후

제대와 함께 전임교원으로 부임하여, 곧바로 혈청 합도글로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합도글로빈은 적혈구가 깨질 때 흘러나온 혈색소를 붙들어 거두어들이는 혈청단백질로, 사람마다 유형이 달라 유전과 단백질 구조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창이었습니다.

합도글로빈 연구는 곧바로 학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1960년 대한의학협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혈청 합도글로빈에 관한 연구」는 이듬해 기초의학 부문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습니다. 대통령에게 받은 상금 30만 원으로 선생은 분광광도계를 구입했습니다. 1963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록펠러연구소의 알렉산더 고든 비언 교수에게 초청** 받았습니다. 비행기 표는 초대 의료원장 박희봉 신부의 주선으로 외상으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배워온 실험법으로 합도글로빈의 구조를 밝혔고, 이는 1964년 세계적인 학술지인 『실험의학보』(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에 실렸습니다.

같은 해, 심봉섭 교수는 합도글로빈과 혈색소의 결합 방식을 규명하여, 결과를 『네이처』(Nature, 7월 25일, 203호)에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쾌거**였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잡지에 3편의 논문을 더 실었습니다(1965, 1969, 1976).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선생은 뼈저리는 건물에서 밤을 새워 함께 일한 교실원들의 덕이라며 공을 돌렸을 뿐, 이를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생화학교실은 합도글로빈 연구의 세계적 거점으로 알려졌고, 선생은 한국인 최초의 세계보건기구 위탁연구관(1967)에 선정**되었습니다.

심봉섭 교수의 신념은 한결같았습니다. 연구자는 논문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후학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다지는 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한생화학회의 학술지 『한국생화학회지』(Korean Journal of Biochemistry)의 편집위원장을 맡아 영문 논문만을 실고(1975) 국제 색인에 등재시키는(1976) 등 학술지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고를 바탕으로, 『한국생화학회지』는 한국 의과학 학술지 가운데 최초로 SCI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선생은 한국 생화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과학상 대통령상(1980)과 대한민국 학술원상(1990)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도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 평생의 좌우명대로, 심봉섭 교수는 손수 만든 장치와 연구를 향한 열정만으로 세계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척박한 자리에서 학문의 빛을 세계의 지면 위로 밀어 올린 그 걸음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더 나아가 한국 기초의학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글 : 인문사회이학과 박승만 교수)

- ▶ 대학의 명칭은 시절에 따라 성신대학 의학부, 가톨릭대학 의학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현 공식명칭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또는 가톨릭대 의대로 일괄 표기합니다.



간암 치료 전 위험도 예측, 맞춤 치료 돕는 AI 모델개발 투약위험 조기판단으로 예후 개선 가능성 입증



한지원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한지원 교수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에서 치료받은 간세포암 환자 2,02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신치료 시작 전 간 기능이 갑자기 나빠질 위험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반 간 안전성 점수(MHSS)’ 모델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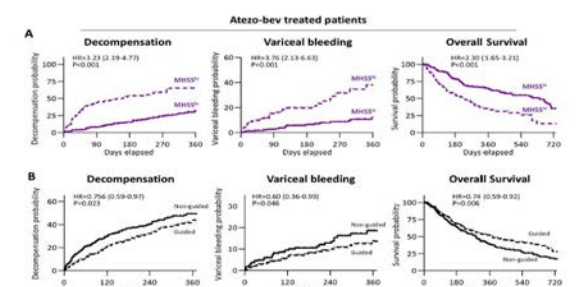
기준에 쓰이던 Child-Pugh나 ALBI 등 전통적 도구들은 주로 혈액검사 수치 중심의 간 기능만 평가하는 한계가 있어, 종양의 크기나 혈관 침범 여부 같은 암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AI 모델은 간 기능과 종양 관련 정보를 함께 분석해 치료 후 정맥류 출혈과 간 기능 악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해 냈다.

분석 결과, MHSS 모델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는 저위험군 대비 치료 중 간 기능 악화 위험이 3.25배, 정맥류 출혈 위험이 4.90배, 사망 위험이 2.21배 유의미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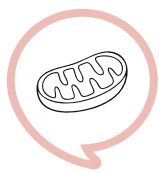
또한 연구팀이 환자군별 맞춤형 치료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출혈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위험도가 낮은 치료제를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했을 때 비적용군 대비 간 기능 악화 위험은 24%, 정맥류 출혈 위험은 40%, 전체 사망 위험은 26% 감소하는 성과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간암 치료 시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가’를 넘어



A. 인공지능(MHSS) 기반 위험도 분류에 따른 간암 치료 안전성 예측
B. 인공지능(MHSS) 기반 치료 선택 가상 시뮬레이션 개선 효과

‘어떤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IF=18.0)에 게재됐다.



세포노화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연결하는 새로운 분자기전 규명

RNA 결합 단백질 T1A-1의 새로운 노화 조절 기능 밝혀



이은경 교수, 차성호 박사과정생(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이은경 교수(교신저자)와 차성호 박사과정생(제1저자) 연구팀이 세포노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새로운 분자 조절 기전을 규명했다.

노화된 세포는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축적되면서 만성 염증과 조직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 최근에는 병리적 특성을 조절해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 '세노모픽스(Senomorphics)'가 새로운 노화 치료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자적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산화 스트레스 기반의 세포노화 모델을 통해 RNA 결합 단백질인 'T1A-1'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노화된 세포에서는 T1A-1의 발현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손상된 미

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미토파지(Mitophagy) 필수 수용체 단백질인 'FUNDC1'의 발현도 함께 줄어들었다.

이 변화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축적과 활성산소 증가로 이어져 세포노화를 촉진했다. 반면, 감소한 T1A-1의 발현을 회복시키자 FUNDC1 발현과 미토파지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유의하게 개선됐다.

이번 연구는 RNA 대사 조절 인자가 미토콘드리아 품질관리와 세포노화를 연결하는 분자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연구는 분자생물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IF=17.5)에 게재됐다.



척추 뼈 결손 치료 난제 해결할 골재생 복합체 개발

BMP-2 · 생체활성 유리 · 광경화성 하이드로겔 결합해 척추 골재생 효과 입증



전홍재 교수, 홍재택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전홍재 교수(교신저자)와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홍재택 교수(제1저자) 공동 연구팀이 척추 골결손 치료의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생체재료 기반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뼈 재생 능력이 우수한 '생체활성 유리(BG)'는 골조직 공학의 유망 소재지만, 분말 형태로 기계적 강도가 낮아 척추 골결손 수술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빛을 쬐면 빠르게 단단해지는 광경화성 하이드로겔(CMCSMA)을 적용해, 수술 시 결손 부위에 최소침습적으로 주입하고 빈틈없이 채울 수 있게 했다.

또한, 골전도성을 지닌 생체활성 유리에 골재생 핵심 성장 인자인 '골형성단백질-2(BMP-2)'를 고정화해 골유도성까지 갖춘 복합체(BG/BMP-2/하이드로겔)를 완성했다. 이 복합체는 BMP-2와 생체활성 유리의 시너지 효과로 우수한 골재생 반응을 유도한다.

연구 결과, 개발된 복합체(BG/BMP-2/하이드로겔)는

BMP-2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골형성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실질적인 신생골 형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척추 골재생에 있어서 기계적 안정성과 생물학적 재생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인 《Biomaterials Research》(IF=9.8)에 게재됐으며, 이번 성과를 통해 전홍재 교수와 홍재택 교수는 국내 대표 연구자 등재 플랫폼인 한빛사(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됐다. 특히 오는 8월 말 정년을 앞둔 전홍재 교수는 임상 연구진들과의 다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빛사에 총 5회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암 환자 가족, 치료비 부담보다 '돈 걱정'이 건강 더 망친다

진행성 암 환자 가족 보호자 200명 분석 결과 발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심진아 교수(제1저자)는 서울대병원 공동 연구팀(조비룡·유신혜 교수)과 함께 진행성 암 환자 가족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재정독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했다.

연구팀은 항암 치료 발달로 간병 부담은 늘었으나 보건의료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보호자 건강에 주목했다. 이에 경제적 부담을 유형적 '물질적 부담'과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다각화하고, 사회적 교류 빈도 및 활동 참여 여부를 함께 평가했다.

분석 결과, 실제 의료비 등 물질적 부담보다 경제적 압박감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보호자 건강에 훨씬 치명적이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보호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삶의 질 저하 위험 8.35배 ▲불안 위험 7.44배 ▲주관적 건강 악화 위험이 3.77배 높았다. 반면 물질적 부담은 우울 위험(2.67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고립' 역시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었다. 사회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보호자는 우울 위험이 3.77배, 주관적 건강 악화 위험이 3.32배 치솟았고, 친구와의 교류가 월 2회 미만인 경우 삶의 질 저하 위험이 2.36배 높았다.

한편, 이번 연구는 《Journal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IF=17.5)에 게재됐다.



응급 수술 필요한 '복강 내 유리가스' 시로 찾아낸다

복부 CT 분석 딥러닝 모델 개발... 위장관 천공 신속 감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외과 김동진 교수팀(은평성모병원 박신혜 교수, 토론토대학교 박사과정 김상욱 연구원, 마스오토 이종협 연구원, 부천성모병원 이하예민 교수)이 위장관 천공의 핵심 소견인 '유리가스(Free Air)'를 복부 CT 영상으로 찾아내는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모델을 개발했다.

위장관 천공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외과 응급 질환으로, 가스가 빠져나오는 '유리가스'가 핵심 진단 단서다. 그러나 가스 양이 적거나 상복부 등에 숨어있으면 발견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위궤양 천공 환자 127명의 CT를 학습시킨 1차 모델(FA-NET)에, 영상 소견이 유사한 충수염 환자 76명의 데이터를 네거티브 트레이닝 기법으로 추가 적용해 오탐을 줄인 고도화 모델 'FA-NET-NT'를 완성했다.

FA-NET-NT 모델은 영상 분석에서 민감도 85%, 특이도 96%를 기록했다. 이어 진행된 검증에서도 95~96% 민감도로 위궤양 천공을 정확히 탐지했으며, 타 질환(충수염, 췌장염, 담낭염)과의 구분에서도 82~92%의 높은 특이도를 나타냈다. 특히 장비와 환경이 다기관 외부 검증에서도 95%의 안정적인 민감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IF=9.0)에 게재됐다.



조기진단부터 정밀 치료까지, 두경부암 환자의 삶을 지키는 여정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준욱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겸 두경부암센터장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박준욱 교수, 그가 이 길에 들어선 계기는 전공의 시절 12시간 넘게 이어지던 두경부암 광범위 절제 수술을 지켜보며 '멋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지난 20년간 두경부암·갑상선암 분야에서 환자의 흉터와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를 이끌어왔다. 환자의 후유증은 줄이고 치료 성과는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술기의 발전으로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는 데서 보람을 찾는 박준욱 교수를 만났다.



최초로 갑상선 구강 내시경수술에 성공하셨는데, 기존 절개 수술과 비교해 환자가 얻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갑상선 수술은 목 앞쪽을 5cm가량 절개하는 방식이 표준이었습니다. 흉터를 줄이기 위해 겨드랑이나 가슴, 귀 뒤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개발됐지만, 결국 피부 어딘가에는 흉터가 남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사전 연구와 해외 참관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한 뒤, 2016년 국내 최초로 입안 절막에 작은 구멍 세 개만 내어 갑상선에 접근하는 구강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가운데 구멍으로는 카메라를, 양옆 구멍으로는 수술 기구를 넣어 목 안쪽에서 갑상선을 떼어냅니다.

가장 큰 이점은,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 절개가 없으니 드레싱도 필요 없고, 수술 다음 날부터 샤워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수술법이고 회복 속도나 목소리 등 기능적인 결과도 기존 수술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다'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위험 신호(전조 증상)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두경부는 감기나 구내염 같은 흔한 질환과 증상이 겹쳐 오인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흔한 질환은 보통 짧게 낫기 때문에, 아래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 통증 없이 만져지고 점점 커지는 목의 멍울
- ▶ 3주 이상 지속되는 쉼 목소리
- ▶ 삼킴 곤란, 한쪽으로 치우친 인후통, 귀로 뻗치는 통증
- ▶ 잘 낫지 않는 구강 궤양이나 흰색·붉은색 반점
- ▶ 한쪽 코막힘, 코피, 안면 감각 이상



두경부 질환과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경부암 진단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치료는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면역항암제, 차세대 유전자 분석(NGS), 표적치료, 정밀 방사선치료(IMRT)처럼 정교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상 조직과 기능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정밀 치료가 가능해졌고, 조기진단과 내시경 수술의 발전으로 후유증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침 한 방울로 두경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플랫폼'을 개발 하셨습니다. 피를 뽑거나 복잡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과 달리 국내에는 두경부암 국가검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내시경으로 직접 봐야 진단이 가능하고, 전립선암의 PSA처럼 간단한 혈액 지표 하나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만으로 선별이 가능한 다른 암들을 보면서, 두경부암도 침처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검체로 스크리닝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해왔습니다.

고려대 정호상 교수님이 먼저 공동연구를 제안해주신 덕분에, 그래핀 기반 나노코랄 구조로 라만 신호를 증폭하고, 인공지능으로 침 속 대사 바이오마커 15종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두경부암 환자군과 건강한 대조군의 타액을 분석한 결과 특이도 100%, 민감도 96%, 정확도 98%, AUC 0.999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진단을 넘어 치료 후 재발 여부까지 이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자의 타액을 반복 추적하면 구조적 변화가 영상에 나타나기 전, 분자 수준의 미세

한 변화를 포착해 재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느끼시는 최근 발병 트렌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경부암 전체 발생률은 국내외 모두 큰 변화 없이 정체된 편입니다. 다만 그 안에는 뚜렷한 양극화가 있습니다. 흡연이 주된 원인인 후두암·구강암은 금연율 증가와 함께 서서히 줄고 있는 반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16형 감염과 관련된 편도·혀뿌리 부위, 즉 구인두암은 해외 통계로 연평균 4% 안팎씩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40~50대, 심지어 그보다 젊은 환자를 만나는 일이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통증 없는 목의 멍울로 처음 내원하는데, 전이된 림프절이 먼저 만져져 단순 림프절염으로 오인하다 뒤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이라면 청소년기 HPV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고, 이미 성인이라도 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2016년 당시 국내



일반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꼭 병원에 가봐'

박준욱 교수
유투브 강의 ▶
QR링크



서울성모병원 유튜브에서 편도암, 구인두암에 대해 설명하는 박준욱 교수



환자의 시간을 따라, 조용한 동행

은평성모병원 암센터 정아람, 신미정, 오정은 코디네이터

노년학과 전담간호사를 거친 정아람 코디네이터, 종양내과에서 고향암 환자를 담당해온 신미정 코디네이터, 비뇨의학과 전담간호사였던 오정은 코디네이터.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해온 세 사람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암센터에서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 교육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조율하기 위해 모였다.

같은 암을 진단받더라도 가족, 일, 앞으로의 생활 등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환자마다 모두 다르다. 한 환자의 치료 과정이 진료실 안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환자의 삶 안에서 치료의 여정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암센터 코디네이터 3인을 만났다.



암센터 코디네이터가 주로 담당하는 핵심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암센터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약 안내나 일정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원위크서비스, 다학제 진료, 환자 상담과 교육 등 환자의 치료 흐름에 맞춰 확인하고 조율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핵심은 치료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특히 환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진료와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합니다. 진료실에서 들은 설명이 실제 치료와 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평성모병원 암센터의 핵심인 '원위크 서비스'와 '다학제 협진' 과정에서 코디네이터는 어떤 조율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원위크 서비스에서 저희는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진료와 검사가 빠르게 연결되면 “다른 곳에서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돼도 괜찮은 건가요?” 하고 되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위크 서비스는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병원의 치료 준비와 환자의 결심 사이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학제 협진 과정에서 암센터 코디네이터는 치료 흐름을 정리하고, 필요한 일정과 설명이 이어지도록 조율합니다. 한 환자에게 여러 진단과 치료 방향이 동시에 제시되면, 환자와 보호자는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코디네이터는 의료진의 판단이 환자에게 차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돕고, 환자가 다음 검사와 치료 과정을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곁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자가 검사 결과, 약제, 지원 절차, 복용 관리 등 새롭게 이해해야 할 정보를 정리하고, 의료진의 설명이 실제 치료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저희의 역할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이해 사이를 이어주는 일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 한 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체장암을 진단받으셨던 분입니다. 가족의 암 치료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분이라, 본인이 진단을 받았을 때 “나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먼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는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지

금 환자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병원은 치료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지만, 환자가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암센터 코디네이터는 그 속도를 맞춰가며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처음의 두려움을 조금씩 정리하고, 치료 과정을 자신의 시간 안에서 받아들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암센터 코디네이터로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진료 전에 이미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오십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몰라서 불안했다면,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를 본 뒤에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맞는 정보를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설명도 환자가 받아들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암정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교육자료를 만들고, 교직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

료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는 것뿐 아니라, 치료를 이해하고 일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 암센터가 더 강화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 관련해 있었던 일이나, 하셨던 생각 중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암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치료는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치료 계획을 듣고 나가신 뒤에야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 삶의 변화, 항암 부작용,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찾아본 정보가 내게도 맞는지 같은 질문들이 뒤늦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암센터 코디네이터는 진료 당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료와 다음 진료 사이의 시간도 함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치료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지만, 환자는 그 시간을 자신의 삶 안에서 받아들이고 정리해야 합니다.

암센터 코디네이터는 환자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어 다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필요한 설명과 연결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스코트 숨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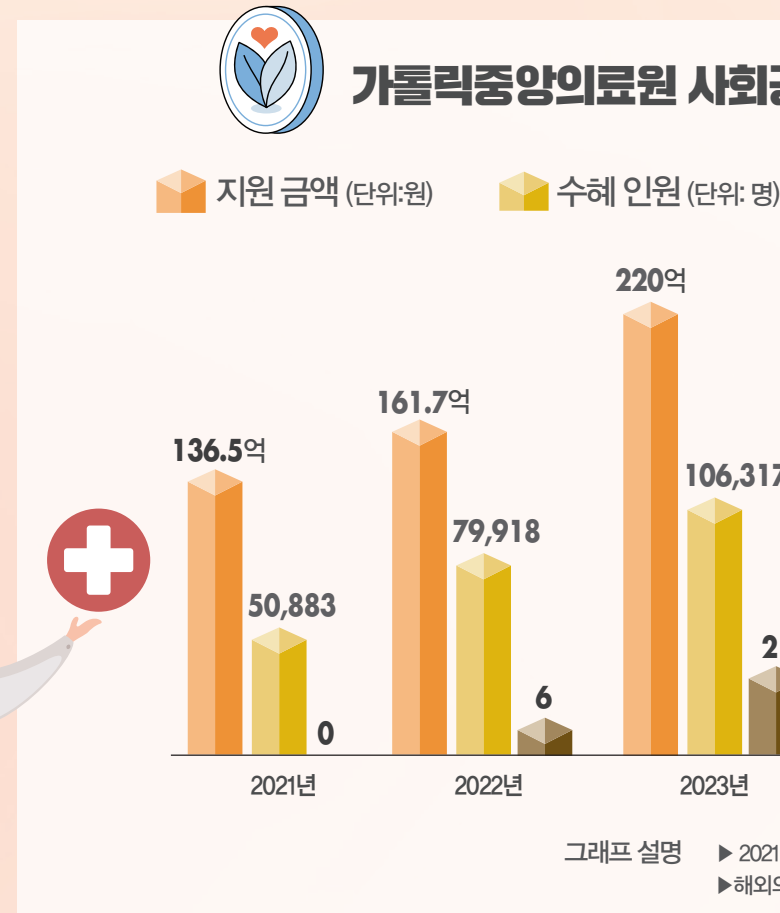
가톨릭중앙의료원, 가난하고 소외된

2025년 사회공헌활동 187억 원, 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창기 교수)이 2025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의료취약 국가를 위한 자선의료 활동을 실천하며 총 187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의료계 안팎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자선의료 실천을 위한 지원 규모와 수혜 인원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생명산업연구원, 정보융합진흥원과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까지 총 12개 기관이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10만 2,840여 명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았으며,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동으로 실천한 용기’, 가톨릭중앙의료원 자선진료 및 교직원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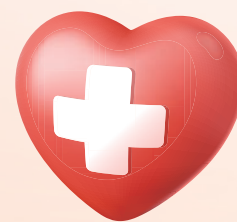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자선진료였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164억 원이 지원됐다. 국내 경제적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가구 등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선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동티모르, 부르키나파소, 몽골 등 해외 의료취약국가의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진료를 지원했다.

이는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네트워크와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며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CMC 사회공헌의 핵심 분야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환자들에게도 일반 환자와 동등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관의 핵심가치를 실천해왔다.

이와 함께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산하 8개 병원에서 교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각 병원의 자선회(성모자선회, 성가자선회)를 비롯해 부서와 동아리 등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기부와 단체활동(의료·노력봉사, 문화행사 등)으로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한 금액은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9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3% 늘었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교직원 역시 최근 4년간 평균 1만 7,400명 수준에서 지난해 2만 6,400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의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사회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기대하는 정체성을 행동으로 실천한 용기이자,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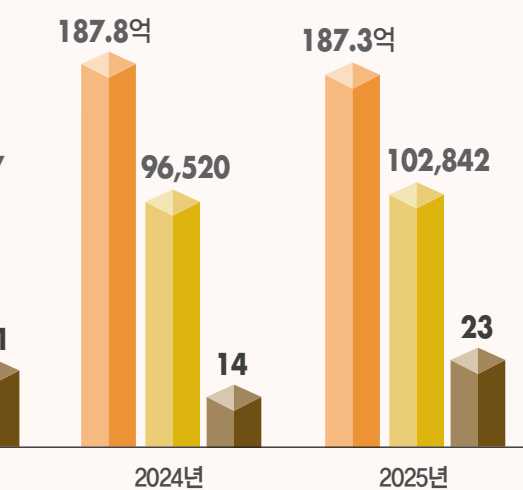
이웃을 돌보는 자선의료 실천



자선의료 실천하며 생명존중 가치 구현

공헌 현황 (2021~2025년)

해외의료봉사 실적(단위: 건)



2021~2025년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해외의료봉사 활동 미시행
의료봉사 실적의 경우 기관 공식 활동과 교직원 개별 활동을 합산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오랜 가톨릭 정신과 자선의료의 전통에서 출발한다. 1800년대 중반 박해의 시대에 한국에 들어온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버려진 아이들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구호사업을 펼쳤다. 이어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전국 가톨릭 신자들의 모금으로 1936년 설립된 성모병원 역시 이러한 자선의료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 온 사회공헌활동은 지난 2018년 신설된 가톨릭메디컬엔젤스(Catholic Medical Angels)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기부(금전 및 의료물품, 생필품) ▲국내외 자선진료 ▲국내외 의료봉사 ▲상설 진료소 운영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 및 교육 등 총 7개 분야로 나뉜다.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올해 설립 90주년을 맞은 CMC는 다가올 100년을 향해 더욱 폭넓고 보편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외 취약계층이 공정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의료를 누리는 보편의료 정책을 실현하고,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경을 넘는 생명존중, 가톨릭중앙의료원 글로벌 사회공헌 현황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글로벌 사회공헌도 2023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사회공헌활동 부서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를 중심으로 8개 부속병원 모두가 현지 의료봉사와 의료진 초청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등 의료취약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의료봉사를 확대해 나가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감사서신 전달



CMC가 보여준 연대의식에 감사, 상호 협력 희망 전달



레오 14세 교황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민창기)에 감사의 뜻을 담은 공식 서신을 보내왔다.

서신은 바티칸 교황청 국무원 국무장관 파올로 루델리 대주교가 레오 14세 교황을 대리해 작성했으며 지난 7월 1일부로 공표됐다.

교황은 서신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최근

주한 교황대사관(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과 체결한 MOU와 관련해 연대의식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한 교황대사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5월 7일 교황대사관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맺은 바 있다.

민창기 의료원장은 서신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님께 감사드리며 CMC는 앞으로도 주한 교황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직무를 이행하시도록 돕겠다”는 소감을 전하고 “교황님께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향한 예정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대교구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폐암 돌연변이 유전자 신속 발견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의 새로운 전망

닥터의 진료현장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임정욱 교수



폐암 치료, 이제는 ‘유전자 확인’이 출발점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흡연뿐 아니라 간접흡연, 미세먼지, 직업적 노출, 가족력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피 섞인 가래, 호흡곤란, 흉통,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폐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암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 그에 맞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폐암이라도

EGFR, ALK, ROS1, BRAF, MET, RET, NTRK, KRAS 등 어떤 변이가 있는지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드리는 설명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먼저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치료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오히려 치료를 더 정확하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자라는 특정 신호를 차단하는 치료로, 해당 돌연변이가 확인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검사를 활용하면 여러 유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1차 치료뿐 아니라 이후 치료 계획까지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KRAS G12C 변이가 확인된 비소세포폐암에서는 소토라십 성분의 표적치료제 사용이 가능해지며, 치료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생활 속 예방이 함께 가야 합니다

비소세포폐암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유전자 분석이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폐암센터는 병리과와 협력해 EGFR, ALK, ROS1, KRAS G12C를 포함한 주요 표적 유전자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항암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며, 간접흡연을 피하고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이라면 저선량 흉부 CT 등 정기검진을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 치료는 이제 “빨리 시작하는 치료”를 넘어 “정확히 맞춰 시작하는 치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임정욱 교수

진료 분야 폐암, 만성 기침,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진 흉부 영상 이상, 폐결핵
진료 시간 [오전] 월 수 [오후] 화, 목



가톨릭대학교 5개 부속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서울성모 · 부천성모 · 은평성모 · 인천성모 · 성빈센트병원 최우수 의료 질 입증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5개 부속병원(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제4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고위험 신생아 대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83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전담 전문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전문 진료 협력과목 보유 여부 ▲집중 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감시배양 시행률 ▲48시간 이내 재입실률 등 총 8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은 전문 의료진 확보와 다학제 협진 체계, 철저한 감염관리 항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으로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부속병원들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신생아집중치료 전문 팀을 중심으로 미숙아, 초저체중 출생아, 선천성 질환 환아를 위한 맞춤형 전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활동과 환자 안전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강화해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있어 최상의 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KT&G복지재단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에 맞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향후 협력 확대 기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최근 사회복지법인 KT&G복지재단과 의료 소외계층 환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후원금 지원과 병원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취약계층 진료환경 개선, 공익의료사업 수행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은 병원에 총 1억 원을 지원하며, 병원은 이를 활용해 의료비 부담으로 적정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비를 1인당 1천만 원 이하 한도로 연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병원은 사업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지원 결과와 후원금 사용 내역을 재단에 공유하되,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협약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KT&G 복지재단은 2003년 7월 KT&G가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눔문화의 확산과 기업과 사회의 상생실현'을 지향점으로 삼아 20여년간 저소득층, 소외계층,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이지열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G복지재단 민영진 이사장은 "재단은 오랫동안 사회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협약도 그 연장선"이라며, "서울성모병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성모병원

방광암 표적치료제 '발베사' 동반진단 검사 국내 첫 구축

전국구 위탁검사 시스템 가동... "FGFR3
변이 신속 확인으로 맞춤 치료 앞당긴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발베사(Balversa, 엘다피티닙 성분의 표적항암제) 치료 대상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FGFR3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특정 약제 사용 전 적합한 환자를 가려내는 검사) 체계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

병원은 FGFR3(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3, 세포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상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위탁검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으로 검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발베사는 FGFR3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환자에서 사용하는 표적치료제다. 치료 전 분자진단을 통해 FGFR3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번 검사 구축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 대상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여러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검사)을 통해 FGFR3 이상을 확인한 뒤 치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이번 동반진단 검사 구축으로 치료 목적에 보다 최적화된 진단 경로가 마련되면서, 환자 선별과 치료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태정 병리과장은 "동반진단 검사는 정밀의료 시대 환자 맞춤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FGFR3 동반진단 검사 구축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돼, 적절한 표적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정 교수



은평성모병원

CMC 최초, 초소형 인공 심장 펌프 '임펠라' 첫 시술 성공

수도권 서북부 중증 심장 응급환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 기반 마련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은 지난 6월 17일 중증 심장질환 치료 분야 신의료기술인 초소형 인공 심장 펌프 '임펠라(Impella CP)'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시술을 통해 은평성모병원은 국내 네 번째이자, 가톨릭중앙

의료원 산하 의료기관 최초로 임펠라를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한 의료기관이 됐다.

임펠라는 혈관 내 미세축 심실 보조장치로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지 못하는 심인성 쇼크 환자의 심장 기능을 보조하는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로, 분당 최대 약 4.3L의 혈류를 전신으로 공급하며 환자의 심장 기능이 회복되어 안정을 찾으면 다시 제거한다.

은평성모병원 첫 임펠라 시술은 극심한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84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당시 급성심근경색 소견으로 스텐트를 삽입해야 했으나 정상 대비 심장 기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환자에게 무리하게 시술할 경우 심인성 쇼크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혈압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자 의료진은 임펠라 삽입을 결정했고 임펠라가 심장을 보조해 기능하는 동안 의료진은 환자의 심장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고난도 관상동맥중재시술(PCI)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임펠라 첫 시술을 진행한 서석민 순환기내과장은 "앞으로도 고난도 중증 심장질환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치료법을 적극 도입하고 지역 내 응급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MC 단신

서울성모병원

“스트레스를 행복의 에너지로!” 간호부 CNⅢ 워크숍 개최



서울성모병원 간호부는 최근 ‘2026년 CNⅢ 기승 단자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스트레스를 행복의 에너지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간호사 개개인의 심리적 동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본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5가지 행동 유형을 학습하며,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행동 방식을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성모병원

2020년대 들어 첫 ‘월간 분만 50건’ 돌파

의정부성모병원이 2020년대 들어 처음으로 월간 분만 실적 50건을 돌파했다. 이번 성과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영성 실천



과 산과 교수진의 팀워크가 바탕이 됐다. 특히 병원이 본격 가동한 고 위험 임신부 집중치료실 (MFICU) 운영과 더불어, 소아청소년과 교수진과

부천성모병원

무료 이동진료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실천



이동진료는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

과 산과 교수진의 팀워크가 바탕이 됐다. 특히 병원이 본격 가동한 고 위험 임신부 집중치료실 (MFICU) 운영과 더불어, 소아청소년과 교수진과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서울대교구 신월동성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2026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60세 이상 분당 교우와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건강강좌를 비롯해 건강검진, 전문 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 개최



은평성모병원이 암 수술과 장기이식 등 고난도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누적 로봇수술 5,000례를 달성하고, 지난 7월 16일 기념 심포지

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해 그동안 축적된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로봇수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의료진 및 수술간호팀이 연사로 나서 과별 로봇수술의 발전과 간호팀의 역할 등 최신 임상 성과를 발표했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국내 첫 신장암 최고난도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홍성후 교수가 단일공 로봇을 활용해 하대정맥 혈전을 동반한 고령 신장암 환자 수술에 성공했다. 홍 교수는 복부 유착이 심한 70대 환자 수술 중 혈전의 하대정맥 침범을 확인하고, 추가 절개 없이 후복막 접근 단일공 로봇수술로 종양과 혈전을 완벽히 제거했으며, 이는 단일공 로봇수술을 통한 신장암 및 하대정맥 혈전 동시 제거 사례로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다.

세계 최대 척추학회 ‘AOSpine’ 핵심 연구 리더 선출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가 세계 최대 척추 학술대회인 ‘글로벌 스파인 콘그레스(GSC 2026)’에서 국제 척추학회 ‘AOSpine’의 핵심 연구 조직 리더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퇴행성 질환 분과 연구위원회 이사(동아시아 유일)에 선임되어 7월부터 3년간 조직을 이끌며, 신설된 내시경 척추 수술 전담 연구 조직(AOSERG)의 첫 책임자 역할도 맡는다.

AI 안과 연구 美 학회 공식 매체 연속 소개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황웅주 교수의 인공지능(AI) 연구가 미국안과학회(AAO) 소식지 ‘EyeNet’과 미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ASCRS) 매체 ‘EyeWorld’에 연이어 소개됐다. 황 교수는 OCT 영상 기반 녹내장 시야

검사 예측 생성형 AI 모델과,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도수 계

산 정확도를 높이는 딥러닝 연구로 녹내장·백내장 분야 임상 적용 가능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시민 건강강좌’개최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황의현 교수가 6월 30일 의정부1동 경로당에서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황 교수는 뇌혈관 질환 예방법과 치료 시기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관계자 참석과 호두과자 나눔 봉사도 함께 진행됐다.

FORS 2026 최우수 구연발표상 수상



부천성모병원 위장관외과 송형석 임상강사가 국제학술대회 ‘FORS 2026’에서 최우수 구연발표상을 수상했다. 송형석 임상강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6개 병원의 위암 수술 환자 3,027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말초삽입형 중심정맥관(PICC)이 일반 중심정맥관 대비 합병증 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위암 수술 전후 관리에 더 효과적인 선택지라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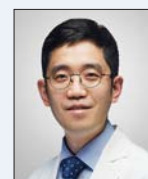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상 장려상 수상

은평성모병원 안과 양순원 교수가 2026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학술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백내장 환자 146안을 대상으로 최신 난시교정용 인공수정체 계산 공식 5종



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해, 모든 공식의 우수한 성능과 함께 도난시 환자 등 난시 유형별 최적의 계산 공식 선택 기준을 제시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구연상 수상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순규 교수가 최근 열린 2026년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간세포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대사체 변화가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예측하고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근거를 제시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세계 최초 단일공 로봇 흉부 교감신경절제술 성공



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현관용 교수가 세계 최초로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검상하 접근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에 성공했다. 이번 수술은 명치 아래 단 하나의 절개창으로 양측 흉강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기존 흉

강경 수술 대비 늑간신경 자극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흉터 부담을 줄이면서도, 로봇의 3D 영상과 다관절 기구로 미세 신경을 정교하게 절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한 따뜻한 마음

김조겸 세무법인 엑스퍼트 대표 · 김두환 님, 은평성모병원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김조겸 세무법인 엑스퍼트 대표와 김두환 님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발전기금으로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6월 15일 병원장, 진료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조겸 대표와 김두환 님은 가족의 치료 과정을 함께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아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두 기부자는 당초 아동 복지기관 기부를 고려했으나, 은평성모병원이 인간 존엄성과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환자와 아동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해 병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기부를 선택했다.

김조겸 대표는 “이번 기부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김조겸 대표님과 김두환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자분들의 뜻이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아내가 남긴 사랑, 또 다른 환자의 희망이 되다

백혈병 투병 중 정호미 씨 뜻 이어 남편 이상화 씨, 은평성모병원에 의료비 2,000만 원 기부

백혈병으로 인한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정호미 씨가 남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고인의 남편 이상화 씨는 생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했던 아내의 뜻을 이어 지난 6월 19일 은평성모병원 사회사업팀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고인의 따뜻한 나눔은 또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된다.

이상화 씨는 아내를 한마디로 ‘늘 친절을 베푸는 천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아내는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애써 내색하지 않고 늘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다”며 “인내와 온유,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던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생전 정호미 씨가 남편에게 남긴 손편지에도 이러한 마음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당신 덕분”이라며 “당신의 사랑 덕분에 행복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싶을 만큼 감사했다.”고 적었다.

유가족은 병원에 전달한 감사의 글을 통해 의료진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족은 “호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다”며 “투병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 준 은평성모병원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회사업팀 조주연 수녀는 “고인과 유가족이 보여주신 사랑과 나눔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화 님과 정호미 님의 사진

2026년 6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임도현				부천성모병원			
(주)선진	5,899,170원	CUI QIANG	10,000,000원	10000보 클럽		강은진	10,000원	강은진	10,000원	강은진	10,000원	부천성모 총무팀	1,520,000원	오다선	매월 5,000원
권은순	20,000원	김호빈	30,000원	강은진	10,000원	곽승기	50,000원	김민석	매월 5,000원	정민석	매월 10,000원	이상훈	매월 5,000원	익명	100,000원
나군호	401,000원	박지은	1,000,000원	고경남	1,000,000원	김민경	매월 5,000원	조수연	매월 30,000원	조수연	매월 30,000원	임대석	1,000,000원	최병숙	매월 5,000원
이상복	50,000원	익명(의료원)	33원	김민경	매월 5,000원	김예린	매월 5,000원	최형숙	매월 5,000원	최형숙	매월 5,000원	은평성모병원			
현철환	10,000원			김연임	10,000원	김정옥	2,500,000원	최봉균	3,600,000원	주은희	매월 30,000원	김두환	10,000,000원	김민영	매월 5,000원
대학(성의교정)				김은진	매월 3,000원	김현수	10,999원	형성하	300,000원	코스닥협회	33,000,000원	김수지	매월 5,000원	김형미	매월 10,000원
(재)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2,000,000원			김정옥	매월 50,000원	노의철	매월 2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김혜인	매월 5,000원	나유비	매월 5,000원
(주)메가스터디교육	28,514,380원			김현진	매월 20,000원	박근우	100,000,000원	강복만	3,000,000원	김정희	500,000원	노미선	매월 500,000원	노지영	매월 5,000원
(주)메가스터디교육	12,405,500원			문성필	500,000원	박완수	매월 10,000원	익명	10,000,000원	남범석	138,100원	문정인	매월 5,000원	박미원	매월 500,000원
CMC신용협동조합	10,000,000원			박기웅	매월 5,000원	박완영	45,000,000원	박남웅	1,000,000원	박하늘	매월 10,000원	박종우	매월 20,000원	박향옥	매월 200,000원
김초롱	300,000원	김초롱	2,700,000원	박원영	5,000,000원	박종희	매월 10,000원	서해인	매월 10,000원	윤민경	매월 20,000원	세무법인 엑스퍼트		10,000,000원	
서정태	1,000,000원	서정태	9,000,000원	박인애	매월 5,000원	신동필	매월 15,000원	성정수, 이강추		83,720,000원		신희원	매월 5,000원	원주영	매월 5,000원
송천재단	5,160,000원	신용삼	14,500,200원	신동호	매월 3,000원	신준성	1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저금통		76,000원		유영서	매월 5,000원	이미란	매월 10,000원
오재찬	1,000,000원	오재찬	9,000,000원	심신애	50,000,000원	심은애	50,000,000원	이철영	100,000원	조범상	매월 10,000원	이상화	20,000,000원	이승희	매월 5,000원
이현식	500,000원	이현식	4,500,000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33,200원	의정부성모병원				이어진	매월 5,000원	익명	매월 30,000원
이현아	2,000,000원	익명	5,000,000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699,300원	(주)국민은행 의정부출력서비스점		50,000,000원		임소희	매월 5,000원	임철진	매월 1,000,000원
최준일	1,000,000원	한민아	1,000,000원	오연우	5,000,000원	우대균	매월 5,000원	김 산	매월 10,000원	김인섭	매월 50,000원	임현빈	100,000원	장세영	매월 5,000원
현철환	10,000원			유한태	150,000원	유한태	1,000,000원	김한진	매월 5,000원	우윤정	매월 5,000원	최한빛	1,000,000원	홍용희	매월 400,000원
서울성모병원				이경석	500,000,000원	이무진	30,000원	부천성모병원							
(주)미래엔	100,000,000원			이상윤	매월 10,000원	이종만	매월 5,000원	김아라	매월 10,000원	박한이	250,000원				
				익명	50,000원	익명	500,000원								
				익명	매월 10,000원	임도경	1,00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7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성빈센트병원

제8·9대 병원장 이취임식 거행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7월 6일(월) 별관 6층 성빈센트홀에서 제8·9대 병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번 이·취임식에서 제8대 임정수 콜베 병원장이 이임하고, 제9대 신임 나승임 안젤리카 병원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 인천성모병원장 홍승모 몬시뇰, 대전성모병원장 강전용 신부, 조재호 아주대학교병원장, 성 빈센트 드 뿔 자비의 수녀회

총원장 이규주 알폰사 수녀 등을 비롯해 주요 내외빈과 교직원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신임 병원장 나승임 안젤리카 수녀는 취임사를 통해 “성빈센트병원이 지난 59년간 이어온 생명존중과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환자와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며 “첨단 의료기술과 따뜻한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의료를 실현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곳”이라며 “교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제8대·9대 병원장 이취임식



신뢰받는 성빈센트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제9대 나승임 안젤리카 병원장의 임기는 오는 2031년까지 5년이다.

간호대학

2026학년도 꽃동네 자원봉사활동 실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음성 소재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2026학년도 꽃동네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간호대학 1, 2학년 학생 총 66명이 참여했으며, 생명의 존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예비 간호인으로서의 봉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식사 준비와 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비롯해 꽃동네 가족 돌보기와 장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로 협력하며 봉사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간호인에게 요구되는 배려와 책임감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간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콩대학교 간호대학과 글로벌 간호 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명문 대학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4박 5일간 '홍콩대학교 간호대학(HKU Med LKS Faculty of Medicine School of Nursing) 학생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과 홍콩대학교 간호대학 간의 국제교류 협력에 따라 마련됐으며, 홍콩대학교 간호대학 우수 학생 6명이 참가했다.



연수 첫날인 6월 29일에는 가톨릭대 간호대학 주관으로 환영 행사가 열렸다. 환영식에는 이선미 간호대학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해 홍콩대 간호대학 학생들을 맞이했으며, 양교 학생들은 각국의 간호교육 시스템과 대학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첨단 교육 환경을 갖춘 가톨릭대 간호대학 캠퍼스를 둘러보며 상호 이해를 높였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을 견학하며 세계적 수준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직접 살펴보았다.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도하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방문해 전인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간호 현장을 체험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와 협력병원, 요양원을 방문해 지역사회 간호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전문 요양·간호 체계를 살피고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성모

인천성모자선회, 동티모르 의약품 지원 전달식 진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자선회는 최근 동티모르 아일레우 지역 주민들의 기초 보건 향상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기초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동티모르



아일레우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성모자선회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질환과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성모자선회는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상처 치료제, 어린이용 의약품, 영양제, 모기 기피제 등 총 27종의 의약품과 위생용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지원 물품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를 통해 현지 공동체와 학교, 기숙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기초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활용된다.

이번 지원은 인천성모자선회가 지난 2019년 진행한 동티모르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이어 추진한 국제 나눔 활동으로, 기존 주거 환경 개선 지원에서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성빈센트·대전성모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선정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대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양질의 수련 교육을 통해 임상 역량을 갖춘 우수 전문의를 양성하고, 전공의가 교육과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평가는 전년도 사업 참여 실적과 수련환경평가 결과, 올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지표는 ▲사업운영 계획의 구체성 ▲수련 프로그램의 우수성 ▲사업성과 창출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3개 분야 1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성빈센트병원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인턴 등 총 7개 분야가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대전성모병원은 인턴,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 총 5개 수련과목이 포함돼 교육 운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CMC) 통합수련제도와 연계해 기관 간 우수한 교육 자원과 프로그램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임상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과 수련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치병에서 조절 가능한 질환으로 알츠하이머 항체치료 200례 달성

국내 최초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치료 워킹그룹' 구축
정밀 진단부터 MRI 안전 모니터링, 장기 추적관찰까지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 선도

항체치료 누적 집계 사례

200례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독립 처방 프로토콜 구축



임상적 진행 지연

27%

3상 임상 18개월 시점
위약군 대비 지연



국내 65세+치매 환자

98.4만 명

노인 10명 중 1명,
조기 치료 시급성 증대



아밀로이드 완충 제거

9개월

조기 치료 환자군
최단기 제거 임상 확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늦추는 항아밀로이드 항체치료 200례를 달성하며 퇴행성 뇌질환 치료의 선도적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내 대다수 의료기관이 신경과 단독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서울성모병원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각각 독립적인 처방 주체로서 '치매 치료 워킹그룹'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어느 임상과를 방문하더라도 아밀로이드 PET 정밀 진단부터 투약, 장기 추적관찰까지 동일한 수준의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에 도입된 항체치료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던 기존 치료와 달리 뇌 속 이상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직접 제거해 질병의 진행 자체를 늦추는 '질병수정 치료(DMT)'를 목표로 한다. 3상 임상시험에서 18개월 투약 시 임상적 진행을 약 27% 지연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신경퇴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전인 조기 단계에 투약할 경우 약 9개월 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완전 제거되는 등 획기적인 임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치료 성과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항체치료는 약 21%의 환자에서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형태의 영상 이상 반응(ARIA)이 동반될 수 있어 정확한 대상자 선정과 정밀한 안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전용 주사실과 전담 간호 인력을 갖추고 영상의학과·핵의학과 등과의 공조를 통해 고해상도 뇌 MRI 정례 검사로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번 200례 달성은 단순한 처방 실적을 넘어, 신경과(양동원·윤보라·이혁제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이창욱·강동우·변기환 교수) 연구팀의 정밀 바이오마커 연구와 고도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이 결합해 이뤄낸 임상 역량의 집약체다.

전문성 기반 맞춤치료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양동원교수



☎ 신경과
윤보라교수



☎ 신경과
이혁제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이창욱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강동우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변기환교수

믿을 수 있는 혈액투석 인증으로 확인 했습니다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대한신장학회, 2026.6.1 ~ 2029.5.31

지속적신대체요법(CKRT) 장비 및 이동형 혈액투석기 보유
교차감염 예방 위한 B형간염 환자 전용 혈액투석 장비 구분 운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YEUIDO ST. MARY'S HOSPITAL

경기북부 응급의료의 최후 보루, 또 한 번 증명했다!

의정부성모병원,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확정

✓ 2029년까지 3년 데! 경기북부 필수의료 완수

- 지정 기간: 2026년 11월 ~ 2029년 10월(3년간)
- 평가 결과: 치열한 전국 경쟁을 뚫고 중증응급질환 최종 치료 역량 최고 수준 인정

✓ 20년의 저력,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생명선

- 시설·인력·장비 완벽 구축 및 닥터헬기 이송 체계 가동
- 중증 응급·외상 환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24시간 빈틈없는 대응

✓ Leader's Message | 이태규 병원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해 준 박정택 센터장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부 대표 거점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Beyond Normal'을 실천하는 스마트 병원의 미래를 열어하겠습니다.”



여름철 저혈압 주의보!

더운 날씨에는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실신**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세요!



어지럼증



피로감, 무기력



메스꺼움



식은땀, 두통



실신

저혈압이란?

- ✓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 이완기 혈압 60mmHg 이하인 상태
- ✓ 단순한 혈압 수치뿐 아니라 **연령과 기저질환에 따라 증상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음**

여름에 더 위험한 이유

- ✓ 체온 조절을 위한 **혈관 확장**: 더위로 혈관이 팽창하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쉽게 감소
- ✓ 급격한 **수분 손실**: 땀 배출이 늘어나면 체내 혈액량이 감소해 혈액순환 저하
- ✓ **주요 장기 기능 저하**: 심장·뇌·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 기능 저하나 실신 위험 증가

생활 속 예방법

- ✓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2.4L 정도의 물을 마셔 체내 혈액량 유지
- ✓ **천천히 일어나기**: 갑자기 일어나기보다 잠시 앉아 몸을 적응시킨 뒤 움직이기
- ✓ **무더위 외출 자제**: 한낮 외출은 줄이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

순환기내과 의료진

	임상현	박찬석	김동빈	변성욱	목지수
오전	월, 수	화, 목	월, 수	화, 금	목
오후	화, 목	월	목	수	월, 금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심장을 지키며
더 어려운 치료까지!

초소형 인공심장 펌프 '임펠라' 시술 성공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이
국내 네 번째로 임펠라 시술에 성공하며
중증 심장치료의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 임펠라(Impella CP)란?

심인성 쇼크 환자의 심장 기능을 보조하는 초소형 인공 펌프로
심장 대신 혈액을 대동맥으로 내보냄으로써 고위험 심장 시술 시
환자의 심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최첨단 순환 보조장치입니다.

임펠라 주요 적용 대상



심인성 쇼크



급성심근경색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중증 심부전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

**중증 심장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치료!**

신 의료기술 임펠라와 함께
최적의 중증 심장 응급치료를 구현합니다.